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상해자유무역구 범위 확대, 금융업 추가 개방

최근 국무원은 상해자유무역구 범위를 28.78km²에서 120.72km²로 3배 정도 확장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확장으로 육가취금융구, 금교개발구, 장강고신구가 상해자유무역구에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는 향후 금융서비스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무역투자의 편리 도모, 금융업의 대외 개방을 한층 확대함으로써 국제경쟁에 대한 상해자유무역구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법(초안), 대부분 외상투자 인허가 취소

지난 1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외국투자법(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하였습니다. 「외국투자법(초안)」은 기존의 외자 3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외국투자자에 대한 사건별 인허가제도를 취소하고,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에 맞는 외자진입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증합일(三證合一)” 전국에서 시행 예정

2014년 6월경에 국무원이 공포한 제20호 문건에서는 국가공상관리총국과 중앙기구 편제위원회에 기업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과 세무등기증, 이러한 3개 증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3증합일”의 등기제도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29일, 강소성은 수첸, 타이저우, 수저우공업원구, 양저우 등 10개 지역에서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과 세무등기증 3개 증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3증합일”의 등기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상총국은 시범지역에서의 시행 효과를 토대로 올해 “3증합일” 제도를 전국적 범위로 확대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신용대출자산 증권화 등록제 가동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는 최근 「중신은행 등 27개 은행에 대한 자산증권화 업무 자격 부여 승인」 결정을 발표하여 중신은행(中信銀行), 광대은행(光大銀行), 화하은행(華夏銀行) 등 27개 은행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은감회의 이번 조치는 자산증권화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ABS 발행자격이 있는 은행은 ABS 발행에 앞서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ABS 발행 전 등록만 하면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계기로 2015년 ABS 발행이 정상화될 것이며 발행규모도 인민폐 4,000억~5,000억 위안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중 도시상업은행과 농업상업은행의 발행규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증권거래소에서 발행하는 ABS발행규모도 폭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